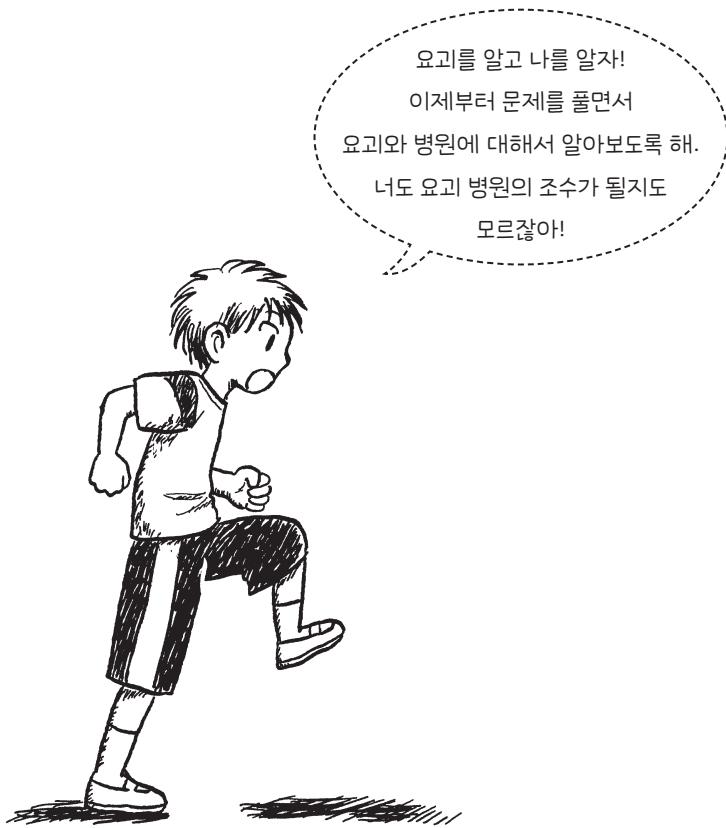


여기는 요고 병원

독후 활동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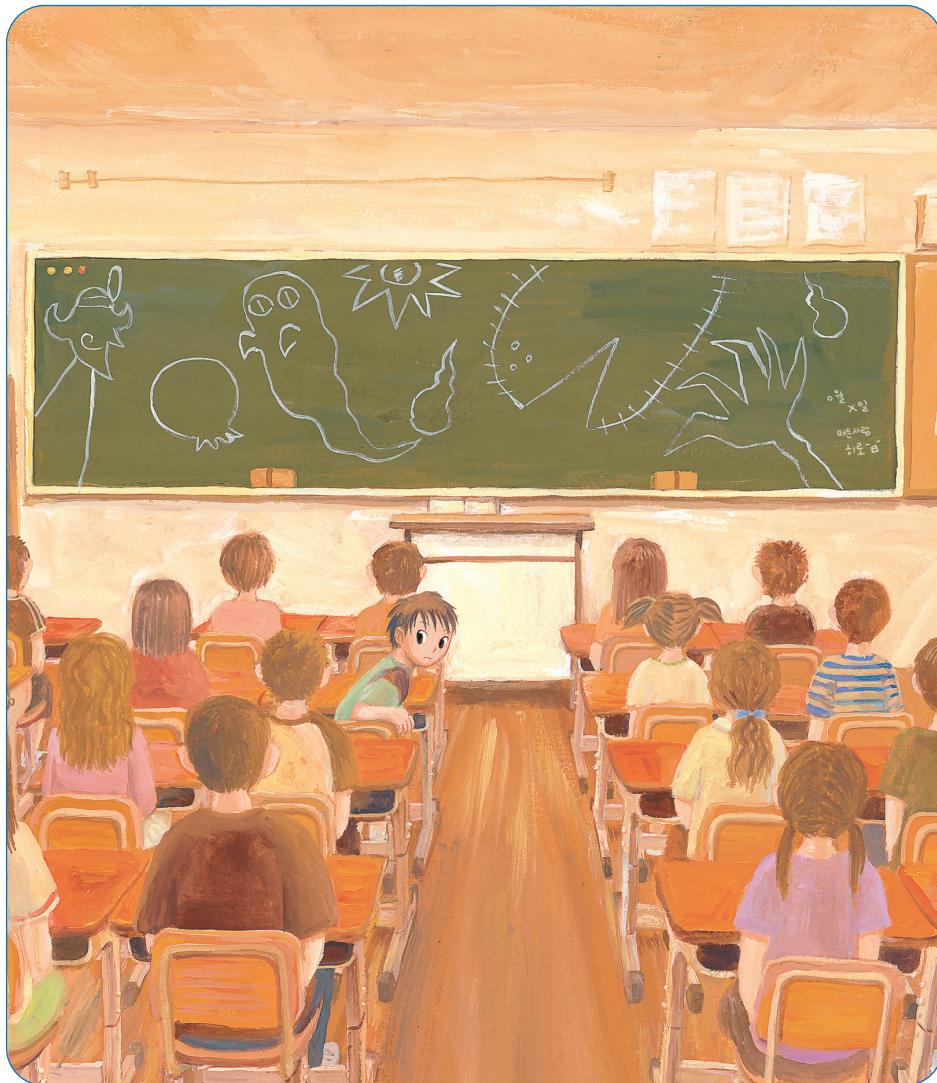
교과 연계

1-1	국어	나 7. 생각을 나타내요
1-1	국어	나 8. 소리 내어 또박또박 읽어요
1-2	국어	나 7. 무엇이 중요할까요
2-1	국어	나 10.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2-1	국어	나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2-2	국어	가 2. 인상 깊었던 일을 써요
2-2	국어	가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3-1	국어	나 6. 일이 일어난 까닭
3-2	국어	가 3.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3-2	국어	나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3-2	국어	나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3	도덕	5. 함께 지키는 행복한 세상
3	도덕	6.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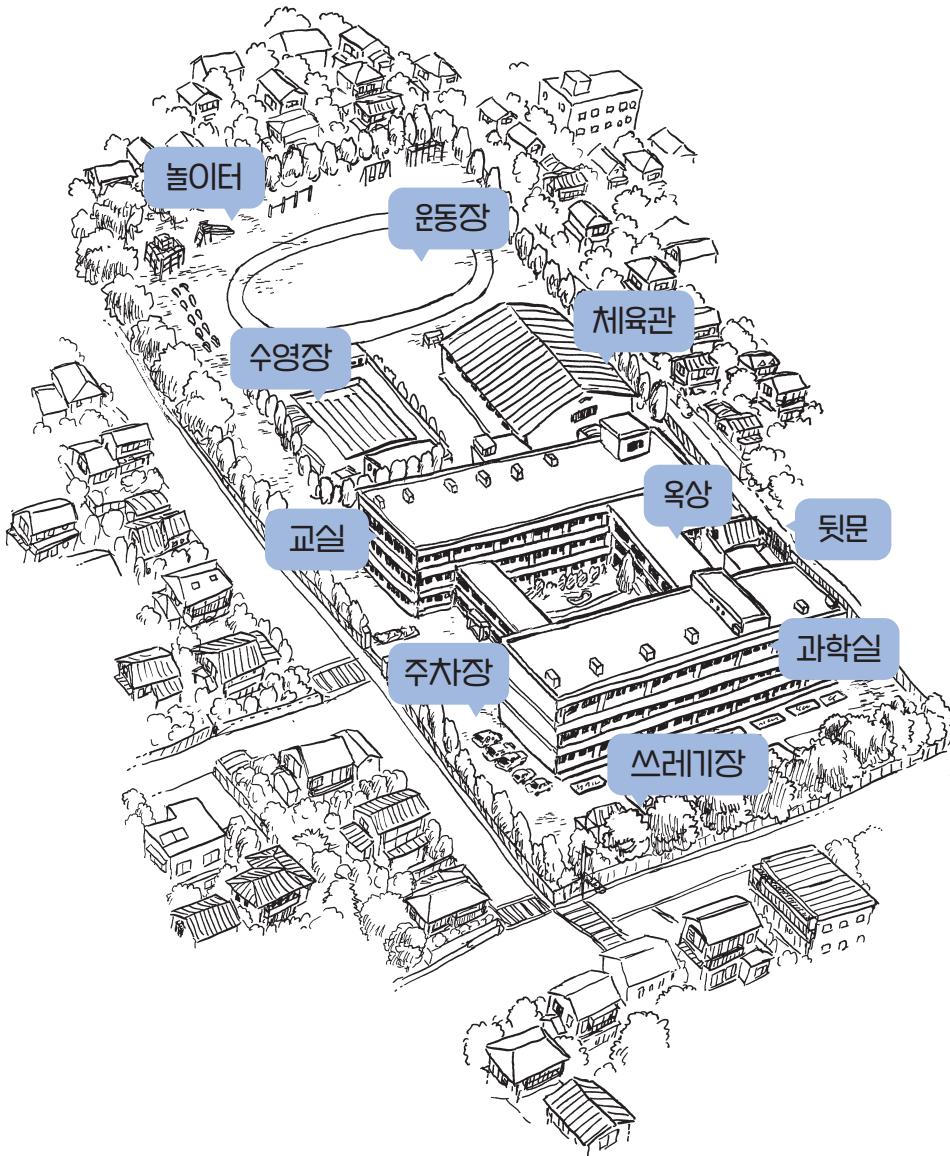
1

준의 학교 교실 모습이에요. 이상한 점이 있는지 찾아서 표시하고,
어떤 점이 이상한지 이야기해 보세요.



2

학교에 요괴가 숨어 있다면 어디일까요? 학교 지도를 보며
요괴가 숨기 좋은 것 같은 장소에 표시하고,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3

탈바꿈이란 곤충 요괴가 자라면서 모양이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림자 벌레는 어떤 종류의 탈바꿈을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곤충 요괴는 알에서 깨어나 어른벌레가 되는 한살이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모든 곤충 요괴가 다 같은 과정을 거쳐 어른벌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데기의 단계를 거치는 곤충 요괴와 그렇지 않은 곤충 요괴로 나누지요.

완전 탈바꿈 알 → 애벌레(유충) → 번데기 → 어른벌레(성충)

불완전 탈바꿈 알 → 애벌레(유충) → 어른벌레(성충)

곤충 요괴는 이처럼 한살이 과정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벌레는 알 → → 어른벌레로 변하니까

..... 탈바꿈을 하는 곤충 요괴구나.

4

준이 다니는 학교에 요괴가 나타났어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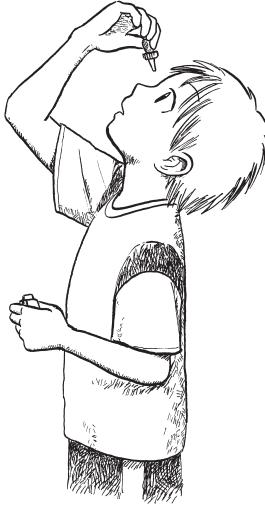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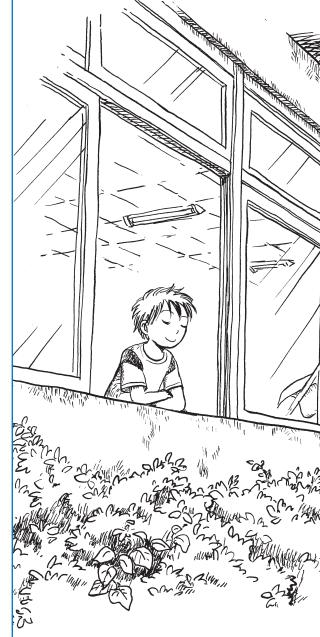
학교에서 태연한 얼굴로 건강 검진을 하는 호즈키 선생님을 만났다.

호즈키 선생님이 거미집 구슬을 던져서 그림자 벌레를 잡았다.

라벤더 향으로 졸음 풍선을 불러들여서 모두를 만들게 했다.





4	5	6
		

탐지 종을 이용해 히로에
게서 그림자 벌레 성충을
발견했다.

준은 눈에 약을 넣고
그림자 벌레를 찾기 시작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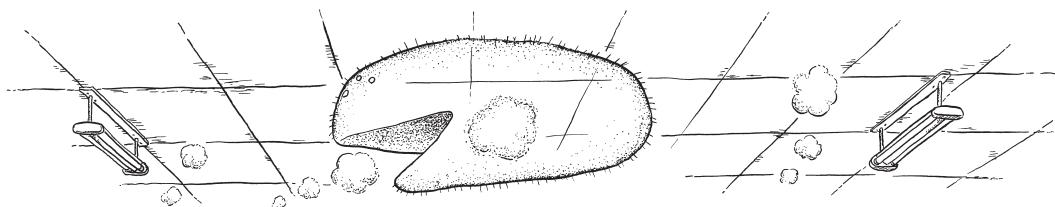
호즈키 선생님이 돌아가
고, 창문을 열어 졸음 풍
선을 쫓았다.





5

요괴가 보이는 안약이에요. 나라면 안약을 넣고 싶은가요? 사용할지, 말지 선택하고 이유를 써 보세요.



★ 왜냐하면



6

준은 그림자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신발 속에 개미가 들어갔다는
핑계를 대요. 나라면 뭐라고 하면서 그림자를 밟을 건가요?





7

나에게 요고 탐지 종이 생긴다면 어디를 탐험해 보고 싶나요? 요고를 보면 하고 싶은 일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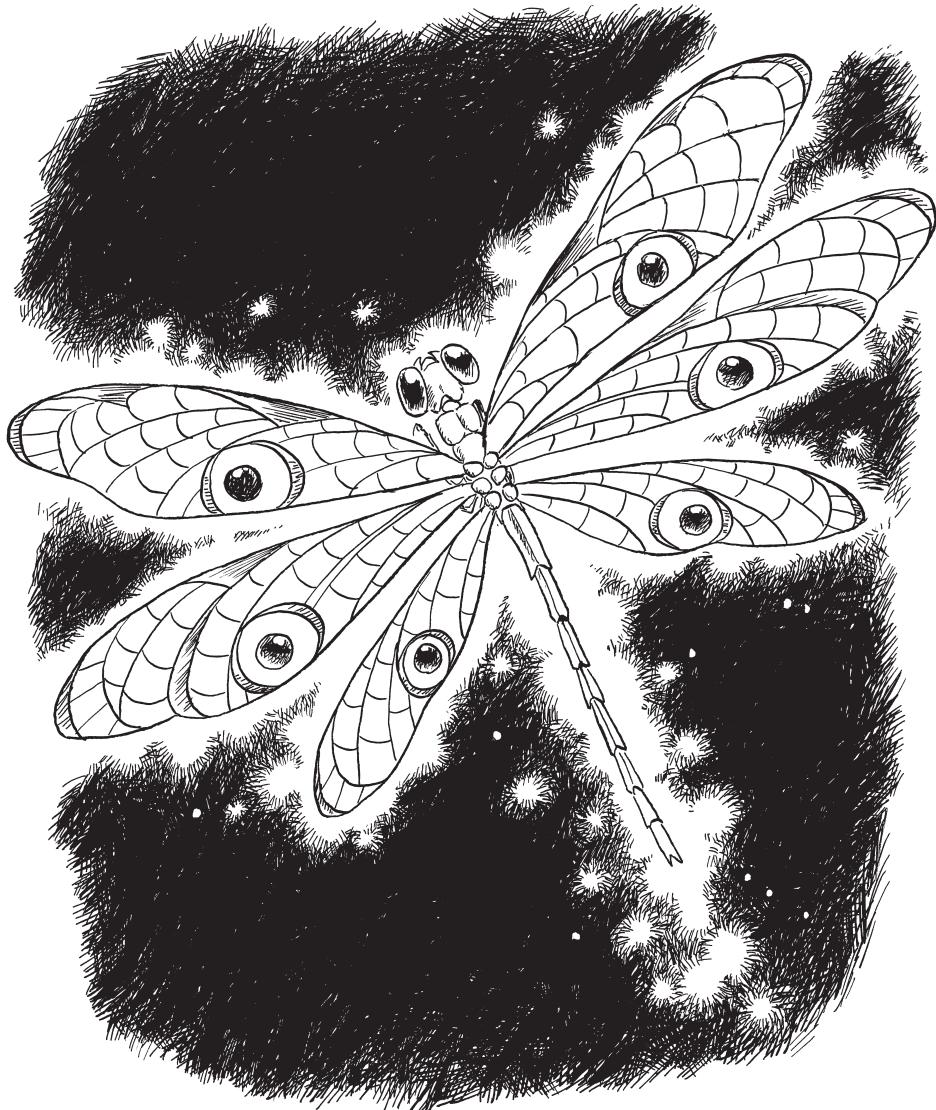
요고가 있을 것 같은 장소	
거기에서 요고가 있을 것 같은 이유	
요고를 보면 하고 싶은 일	





8

그림자 벌레 성충은 마법 나라의 요정 같은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보면 어떻게 반짝반짝 빛이 날지 색칠해 보세요.



9

학교에는 생각보다 요괴가 많았어요. 요괴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
내가 만났던 것 같은 요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양	특징
냄새 먹는 요괴	짚신벌레 같은 몸에 작은 눈이 세 개, 터무니없이 큰 <u> </u> 이 있다.	안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몸으로 둉둥 떠 다닌다. 냄새를 덥석덥석 먹어 치운다.
그림자 벌레	<p>유충 매미 유충 같은 모습이고, 옆구리에는 눈알 무늬 세 개가 있다.</p> <p>성충 반짝이는 여섯 날개를 가진 커다란 <u> </u> 모양이다.</p>	<p>유충 인간 그림자에 붙어서 그림자를 먹는다. 인간은 그림자가 점점 열어진다.</p> <p>성충 <u> </u>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도 지식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p>
졸음 풍선	검은 풍선 같은 모양. 몸 위쪽에 순해 보이는 눈알이 두 개 있다.	아이들의 머리에 붙는다. 그럼 꾸벅꾸벅 졸게 된다. 하루 중 점심을 먹고 난 다음 2~3시간 사이에 나타난다. <u> </u> 향을 좋아한다.



퇴치 방법	만난 적 있는 것 같은지?
손을 흔들어 쫓는다.	
<p>유충 그림자를 발로 밟으면 연기처럼 사라진다.</p> <p>성충 거미집 구슬을 던져 그물에 걸리게 한다.</p>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오게 하면 바람에 날려 사라진다.	

10

<시험 점수와 요고가 상관 있다고?>와 관련된 가로세로 낱말 퀴즈예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보세요.

①			②			③
⑦					⑮	
④				⑮		⑥
⑮			⑮			
				⑮		
⑯						



세로 문제

- ① 학교나 회사에서 구성원들의 건강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에요. 준은 여기에서 호즈키 선생님을 만나 깜짝 놀랐어요.
- ② 호즈키 선생님은 보건실에서 가슴에 이것을 대며 진료를 하고 있었어요.
- ③ 애벌레를 부르는 다른 말이에요.
- ④ 점심을 먹은 후 2~3시간 사이에 나타나 잠들게 만드는 요괴예요.
- ⑤ 요괴가 주변에 있으면 '띠링' 하고 울리는 장치예요.
- ⑥ 그림자 벌레 성충은 날개가 6개 달린 ○○○ 모양이었어요.

가로 문제

- ㉠ 몸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것으로, 준이네 학교는 오늘 ○○ ○○을 하는 날이었어요.
- ㉡ 어른벌레를 부르는 다른 말이에요.
- ㉢ 짚신벌레를 닮은 요괴는 커다란 입을 빼꼼거리면서 ○○ 냄새를 먹었어요.
- ㉣ 작고 가는 티끌을 뜻하는 말로, 그림자 유충을 밟으면 바람에 날리는 ○○처럼 사라져요.
- ㉤ 히로가 곁에 다가오자 ○○○가 멈추지 않아서 곤란해졌어요.
- ㉥ 담임 ○○○ 몸에도 그림자 벌레가 붙어 있어서, 준은 신발에 개미가 들어갔다는 핑계를 대며 그림자를 밟았어요.

오늘의 요괴 상식

요괴 중에도 먹보는 많다!

요괴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난번에 만난 아들 너구리도 온갖 것을 다 집어먹는 바람에 저주에 걸리기까지 했다. 이처럼 요괴들의 식성도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요괴니까 밥만 먹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로 공략한다.

특히 유명한 먹보 요괴들 몇몇을 살펴보도록 하자.

★ 감서

쥐와 비슷하게 생겼다. 몰래 다가가서 몸을 갉아 먹는데, 재주가 뛰어나서 갉아 먹히는 상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웬만큼 갉아 먹고 나면 당연하겠지만 상대는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모른다고 하니 꽤나 무서운 녀석이다. 일단 쥐처럼 보이는 녀석은 피하는 게 좋다.

★ 단피몽두

사람처럼 생겼는데, 키는 두세 배 정도 크다. 다만 머리에 모자 같은 것을 깊게 눌러써서 얼굴은 전혀 볼 수 없다. 모자라고 하지만 복면과 비슷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매우 많은 양의 밥을 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둘 이상이 함께 나타나면 풍년이 든다고도 하니, 자기가 먹을 밥은 자기가 쟁기는 모양이다. 혹시라도 마주친다면 밥값을 탈탈 털릴 것을 각오해야 한다.



★ 불가사리

태생이 독특하다. 왜냐하면 밥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작고 귀여웠다고 하는데, 쇠를 먹으면서 크기가 점점 커진다. 쇠를 무척 좋아해서 계속 먹어 치우고, 먹을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결국 거대한 괴물이 되어 난동을 부린다. 활을 싹도 화살을 먹어 버리고, 칼로 베려 해도 칼을 삼켜 버리니 잡을 수도 없다. 불에 약하다는 설이 있지만, 불화살로도 잡지 못했다는 말도 있으니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불까지 날지도, 밥풀을 뭉쳐 뭘 만들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 대인 요괴

눈이 하나고, 덩치가 무척 큰 요괴다. 인간을 잡아먹는 훈치 않은 요괴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녀석이다. 화로를 피우고 기다란 꼬챙이에 사람을 구워 먹는다고 한다. 스스로는 많이 먹는 편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워낙 크기가 커서 우리 기준에서 보면 어마어마하다.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마주치게 된다면(그러면 안 되겠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의외로 정리 정돈하는 것에 집착하니 도망치면서 물건을 내던지면, 다시 정리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따라오지 않는다. 꼭 기억할 것!



정답 및 해설

1 예시 답안: 칠판에 요괴가 그려져 있어요. 낙서일 수도 있지만 요괴일지도 몰라요. / 호즈키 선생님 그림도 있어요. / 준이만 뒤돌아보고 있는 게 이상해요.

2 예시 답안: 수영장 '물요괴가 숨기 좋아요.' / 체육관 '운동 기구들 사이에 숨을 곳이 많아요.' / 과학실 '과학실은 으스스해요. 요괴들이 좋아할 것 같고, 요괴가 있어도 알아채지 못할 거 같아요.'

3 그림자 벌레는 알 → 애벌레 → 어른벌레로 변하니까 불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 요괴구나.

4 1 → 5 → 4 → 3 → 2 → 6

5 예시 답안: 사용한다. 왜냐하면 진짜 요괴가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괴가 보인다면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할 것 같기 때문이다.

6 예시 답안: 교실 바닥에 벌레가 있었어요. / 갑자기 다리가 저려서 팡팡 뛰었어요. / 그림자밟기 놀이를 하면 어때요?

7 예시 답안

요괴가 있을 것 같은 장소	공사장 / 밤의 놀이터 / 터널
거기에도 요괴가 있을 것 같은 이유	사람이 안 다녀서 / 깜깜해서
요괴를 보면 하고 싶은 일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요. / 뭘 하는지 관찰하고 싶어요.



정답 및 해설

8

다채롭게 색을 칠해 본다.

9

터무니없이 큰 입이 있다. / 커다란 잠자리 모양이다. / 인간의 지식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 라벤더 향을 좋아한다.

예시 답안: 그림자 벌레를 만난 적 있는 거 같아요. 아무리 와워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구요. / 졸음 풍선은 자주 만나요. 우리 반 애들 전부 다 만나는 거 같아요.

10

보			청			유
건	강	검	진		성	충
실			기			
졸				탐		잠
음	식		먼	지		자
풍				종	소	리
선	생	님				



추천 도서

오늘도 재앙을 뛰어넘는 평범(?)한 하루가 지나간다



- ① 똑똑! 옆집 여우인데요
- ② 서랍 속 세계로 떨어졌다!
- ③ 거울 속에 누군가 있다
- ④ 달 없는 밤에 갇히다
- ⑤ 요괴섬에 도착하다

도미야스 요코 글 | 오바 켄야 그림 | 송지현 옮김 | 각 권 14,000원

판타지 문학의 거장 도미야스 요코의 또 다른 걸작!

여우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느라 조금은 어수선한 시노다네.

괜찮아요, 누구나 비밀 하나쯤은 있는 거니까.

하지만 풀력이는 꼬리보다 수상한 일이 자꾸 벌어져요!

과연 시노다네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재앙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수상한 시노다 가족의 수상한 성장 스토리를 만나 보세요.